

나의 노력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뒤쳐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특징은 철저하게 '겉모습'만 본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얼굴은 얼마나 예쁘며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도전하는 것들이 유명 상표가 붙은 가방과 운동화, 이번 시험에는 반에서 몇 등, ○○대학교 ○○학과 입학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동안 인간이 체계화한 여러 지식과 경험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폭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몇 점, 몇 등, 무슨 대학, 무슨 학과 진학 등을 자신의 목표로 세운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일하게 될 분야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는 인정이나 좋은 지위를 영원히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 후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잠시 내가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노력'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구약의 룯기를 보면 룯이 젊은 과부가 되었을 때 모압 땅에서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재미있게 살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땅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룯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없어질 것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 모압 여인 룯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되므로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룯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가 쌓아둔 것이 영원히 남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나의 인격과 삶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내가 도전하고 바라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바라고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해지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이 강요하는 거짓된 가치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머리가 좋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뛰어난 사람보다는 좀 부족해도 순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만 겸손하면 내가 영원히 가려져버릴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진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있었던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에게 곧 새벽이 왔습니다.

늘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너무나도 빨리 새벽이 옵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감사하면서 생활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이며 우리의 삶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무엇을 위해 바치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사지만 곧 없어지는 것에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곳에 바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반에서 몇 등 하고 무슨 학교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기영/청소년다락방 총무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